임민욱 작가의 '내비게이션 아이디'.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가 담긴 컨테이너 2개를 광주로 옮겨왔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치유의 굿'

광주비엔날레 임민욱 작가 '내비게이션 아이디' 화제

경산 코발트 광산·진주 민간인 학살
한국 역사 치욕 '6·25 비극' 다뤄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주목

지난 27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화제다. 이날 방송은 '뼈 동굴 미스터리, 50년 괴담의 진실'을 주제로 경산 코발트 광산의 뼈동굴 미스터리를 추적했다.

경북 경산 평산동에 있는 코발트 광산에서는 사람의 뼈가 무수히 쏟아져 나와 이른바 '뼈동굴'로 불린다. 이 유골들은 한국전쟁 당시 '빨갱이'로 오인받아 학살된 이들의 것으로 경찰과 육군본부 정보국 직원들에 의해 희생됐다. . 전문가들은 최소 1800명에서 최대 3500명 이상이 이 동굴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송 이후 이 사건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방송 말미에 같은 주제를 다룬 임민욱 작가의 광주비엔날레 개막 퍼포먼스 '내비게이션 아이디'가 소개되면서 2014 광주비엔날레 작품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임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개막 전인 지난 3일 국내외 미술계 주요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과 진주지역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를 컨테이너 2대에 담아 광주로 가져왔다. 이 컨테이너는 광주비엔날레의 작품으로 전시장 앞 광장에 전시 중이다. 또 퍼포먼스 과정이 담긴 영상과 함께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경산을 찾아가는 과정 등이 담긴 임 작가의 '내비게이션 아이디-X가 A에게'는 1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 작품은 코발트 광산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만나 배타성을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과 진주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한국 사회가 금기시하는 터부다. 하지만 임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개막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역사의 가려진 치욕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여실히 지적했다.

이미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유골들의 억울함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발굴도 없고, 이미 발굴된 유해들의 안치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중단됐기 때문이다.

임 작가는 "한국 전쟁 중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은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념으로 갈라졌던 남과북이 인정하지 않는 죽음들을 예술적 맥락에서 다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 작가가 오랜 시간 코발트 광산을 리서치해 작품으로 승화시킨 이유는 '사건을 고발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가 강하다. 작가는 아직도 진행 중인 '좌빨', '종북' 논쟁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한국전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번 작품은 일종의 사례와 같다. 한국전쟁을 들여다보면서 아직도 한국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적대 논리를 통해서만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이들이 많다. 덮어두면 우파고, 밝혀내자고 하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걸 계기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려고 했으면 한다. 반복은 피해야 한다. 광주도 비극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코발트 사건이 있었고. 광주도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봐라'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이겨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1전시실에 놓인 임 작가의 설치 작품 '채의진과 천 개의 지팡이'도 민간인 학살 사건과 연관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49년 12월 문경 석달마을에서 민간인학살사건 중 형과 어린 사촌의 시신 아래 깔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채의진 작가가 슬픔과 분노를 이겨내기 위해 만든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채 작가는 30년 동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나무 가지와 뿌리로 지팡이 등의 조각을 만들어왔다.

특히 작품 앞에 묘비처럼 놓인 조각에 새겨진 글은 관람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슬픔/ 그런 슬픔에 굳어버린 나의 얼굴"(채의진 '자화상')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6·25 당시 경북 문경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룬 임민욱 작가의 '채의진과 천 개의 지팡이'.

꼴통·삔질이…우울한 인간 군상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손병현 첫 장편 '내 곁에 유령' 출간

광주일보(1999년) 신춘문예 출신 손병현 작가의 첫 장편 '내 곁에 유령'(평민사)이 출간됐다.

'내 곁에 유령'은 '타워팰리스' 고시원과 '마리서사'에 머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눅눅하고 우울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작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특유의 심미안적 시선과 해학적 문체로 반추해낸다.

'타워팰리스 고시원' 속 인물은 철저하게 유령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부유하는 이들은 점점 더 깊은 무덤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형국이다.

주인공 철식은 전문대를 졸업 후 이렇다 할 능력도 없는 무명작가다. 어느 날 고시원 총무가 된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인간군상들을 만난다. 꼴통, 증권맨, 삔질이 등으로 이들은 상황에 따라 호스티스, 수배자, 증권사 퇴물, 원정 매춘녀 등 다양한 얼굴로 세상을 살아간다. 철식은 이들과 좌충우돌 부딪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상의 편견과 소외로 상처를 입는다.

작가는 철식을 스스로 유령되기를 자처한 인물이면서 이 시대가 만들어낸 또 다른 유령의 모습으로 규정한다. 이 작품이 잔잔한 여운을 주는 것은 우리 곁에 너무도 많은 '유령들'이 숨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조선대미술관 다음달 4일까지 특별전

문형선 작 'Space-utopia'

조선대미술관(관장 진원장)이 10월 4일까지 '표상(表象)'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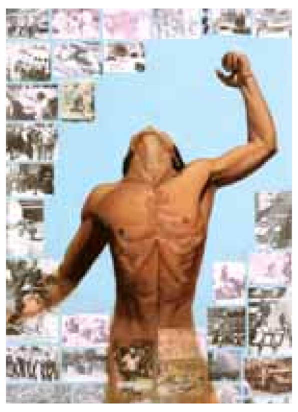
표상전은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기회를 주기 위해 여는 전시다.

전시에는 고마음·고용석·김계진·김단비·김명석·김성결·김 엽·김은지·김환·문형선·박이슬·서현호·송지윤·안지현·양호열·오관영·윤준성·이건용·이미숙·장미란·정마음·정명숙·조혜리·지영란·최고은·최정희·최진솔·하태민씨 등이 초대됐다. 전시는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소, 도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현대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작품들은 세계 미술 속에서 우리나라의 예술적 위치를 되돌아보면서 한국현대미술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와 가치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62-230-783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청각장애인미술회원 13명 초대전

국윤미술관, 내달 18일까지 광주비엔날레기획전 '울림의 터'



박진 작 '타는 목마름으로'

국윤미술관(관장 국중효)는 10월18일까지 2014광주비엔날레 기획전 '울림의 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미술협회(회장 박진) 회원 강미선·김태균·김환주·박석규·박양수·박인희·박진·방두영·신영재·이봉화·이성기·이소라·이우주씨 등 모두 13명이 초대됐다. 청각장애인미술협회는 개별적인 작품활동과 함께 일반작가들과 협력 및 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미술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번 전시도 장애인 예술가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 기획됐다. 회원들은 장애를 떠나 깊은 울림을 주면서 작가와 관람객의 마음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문의 062-232-7335.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